

2024. 4. 1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
한강이용증진과

한강전략사업부장 | 이예림 | 02-3780-0870

한강이용증진과장 | 이진오 | 02-3780-0661

사진있음 사진없음 매수 : 5매

서울시, '한강 리버버스' 선박 건조 착수... "10월에 선보인다"

- 서울시-SH-(주)이크루즈, 11일(목) 경상남도 통영에서 '한강 리버버스 착공식' 개최
- 외부 충격 화재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, 전기 하이브리드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
- 4월 중 7개 선착장도 착공 시작, 버스노선 신설·조정 등 접근성 개선사업도 추진 중

□ 서울시는 오는 10월, 한강에 새롭게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 '한강 리버버스' 선박 8대 모두 건조에 착수,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 오는 9월 말 완성돼 10월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.

○ '한강 리버버스'는 마곡, 망원, 여의도, 잠원, 옥수, 뚝섬, 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, 평일 1일 68회 운항하고, 한 번에 199인이 탑승할 수 있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. 요금은 3천 원이며, 한강 리버버스까지 이용 가능한 6만 8천 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.

□ 서울시는 '한강 리버버스' 운영사인 SH, (주)이크루즈와 함께 지난 11일(목) 선박이 제작되는 경상남도 통영시 건조 현장에서 「한강 리버버스 착공식」을 개최했다.

- 착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강재(steel) 절단으로 ‘한강 리버버스’ 건조 시작을 알렸다. 아울러 현장 작업자들에게 선박 건조와 관련해 안전한 작업과 공기 준수 등을 당부했다.
- 이 자리에는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SH와 (주)이크루즈 관계자, 선박 건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.

<외부 충격·화재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, 전기 하이브리드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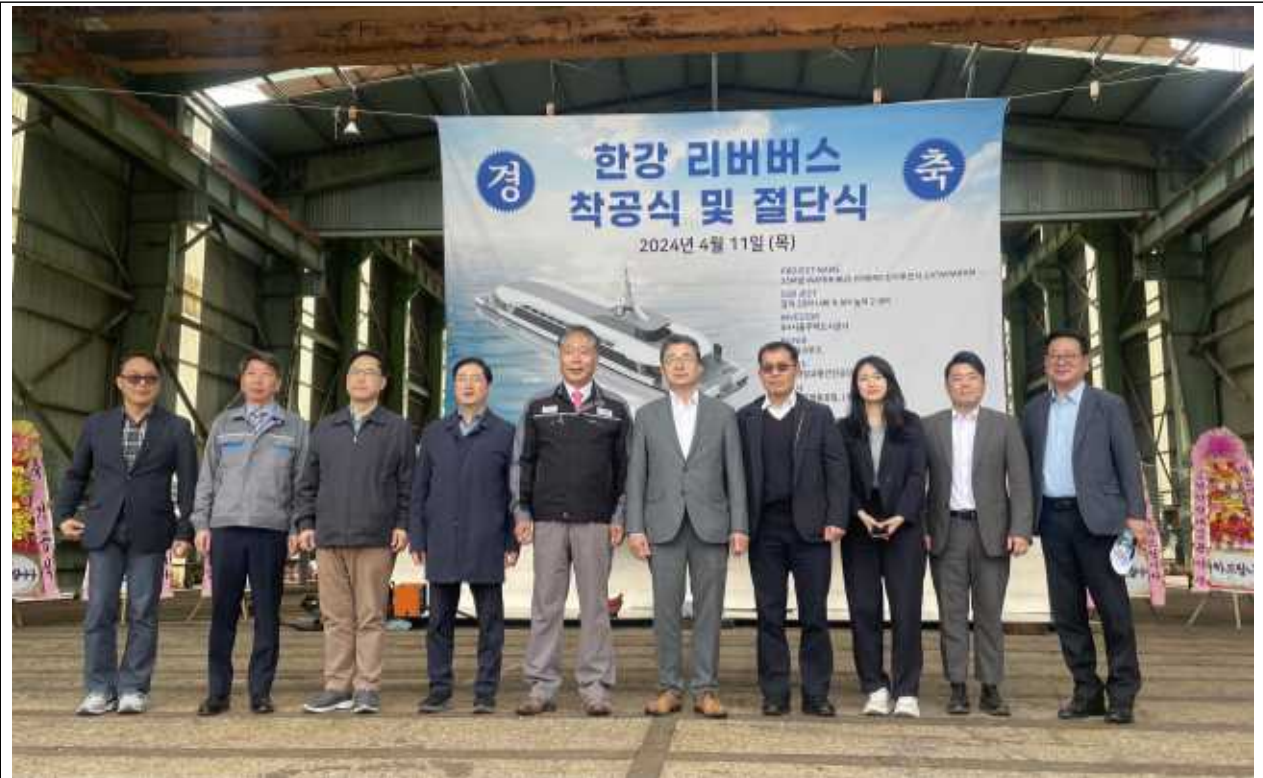
- ‘한강 리버버스’는 길이 35m, 폭 9.5m, 150톤급 선박으로 제작된다. 일반적인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FRP(강화플라스틱)보다 가벼우면서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%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외관이 만들어진다. 아울러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%가량 적은 전기-디젤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.
- 이와 함께 서울시는 ‘한강 리버버스’ 7개 선착장도 4월 중으로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. 곧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으로 선착장과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신설·조정, 주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도 함께 진행한다.
- ‘한강 리버버스’ 선박과 선착장,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,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은 9월까지 모두 끝낸 후 시범 가동 거쳐 오는 10월에 시민들에게 선보인다.

□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한강에 새롭게 도입되는 ‘한강 리버버스’ 선박 8대가 일제히 건조에 들어가면서 신 대중교통 시대의 개막이 힘찬 첫걸음에 내딛었다”며 “선박은 물론, 선착장 조성, 접근성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10월에 ‘한강 리버버스’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한강 리버버스 착공식 사진 및 조감도.

[붙임]

〈한강 리버버스 착공식 사진〉



한강 리버버스 착공식



한강 리버버스 착공식 테이프 커팅

〈한강 리버버스 조감도 사진〉



한강 리버버스 및 선착장 조감도



한강 리버버스 조감도